

새 책

▶여자를 위해 대신 생각해줄 필요는 없다(이러영 지음)=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 미국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드러내온 작가와 그 작품들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읽고 쓴 독서 에세이 형식이지만, '정상'이라 일컬어지는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적인 모습들은 이 땅의 그것과 많은 부분 겹친다. 한국의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문화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다시 한번 일깨운다. 문예출판사. 1만6000원.



▶클라우제비츠와의 마주침(김만수 지음)='전쟁론'은 프로이센의 전쟁 이론가인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가 쓴 책으로 명실상부 정치사상, 국제정치, 전쟁철학, 군사학 분야의 최고 고전이다. 한국에서도 클라우제비츠 연구가 시작된 지 60년이 지났다. 저자는 이 60년 동안 전쟁론과 클라우제비츠가 한국에 어떻게 수용, 유포, 계승됐는지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클라우제비츠 연구의 현황과 수준을 정리한다. 갈무리. 3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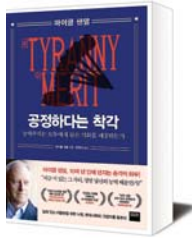
▶침대 위의 세계사(브라이언 페이건·나디아 더러니 지음)=침대가 수면(과 책스) 외에 다른 용도가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다. 고대부터 미래까지, 또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역할이 달라져 온 침대와 거기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펼쳐낸다. 침대의 역사, 수면의 역사와 수면 치료, 결혼과 성, 출산과 침대, 임종 침대, 침대 공유 등 총 10장으로 이뤄졌다. 울렛북스. 1만8000원.



▶정은(조신영 지음)=고요한 마음 출간 이후 5년간 한 글자도 쓸 수 없었던 저자가 어둔 절망의 길에서 발견한 수많은 새벽이 이 책에 담겼다. '정은'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저자가 5년의 멈춤 동안 갈구했던 마음이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 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위로를 준다. 클래식북스. 1만7500원.



▶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 샌델 지음)='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쓴 신간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이 맞는 건지 되짚어본다. 미래엔 와이즈베리. 1만8000원



▶수학의 함정(자비네 호젠펠더 지음)=이론물리학자인 저자는 그동안 자신이 쌓은 경험, 그리고 동료 과학자 및 세계적인 이론물리학 석학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대물리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고발한다. 이론물리학자들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론의 자연스러움, 단순성, 우아함 등 미적인 기준에 기대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몸담은 학문이 제 역할을 되찾기를 바라는 저자의 헌신이 느껴진다. 해나무. 2만원. 송문범기자 seb119@ihalla.com



의료민영화의 한계... 사람중심 의료로

백영경의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현장 의료인 등 5명 대담 "시민과 지역 함께 주체로"

"전문가가 주도해온 기존의 병원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고, 자본의 손으로 넘어가면 더욱 척박해지리라 단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의료를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백재중 인천연합병원장, 내과 전문의)

"환자는 어떤 특정 집단으로 영윈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잠재적 환자이고, 환자의 가족이죠. 우리 모두의 문제라 생각하고 부동산 문제에 기울이는 관심과 열정의 절반만큼이라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최원영 서울대병원 간호사)

국내 의료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사람중심 의료'의 바람을 담아 전하는 말이다. 코로나 19사태는 의료 공공성에 대한 관

심을 높였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공공의료의 부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느끼고 있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백영경 교수가 '한국 의료의 커먼즈 찾기'란 부제 아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는 K-방역의 성공에 가려진 한국형 의료체계의 민낯을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의료의 모습을 전망하고 있는 책이다. 백재중, 최원영, 윤정원(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지은(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5명과 대담하며 한국사회에서 다른 의료의 과연 가능한지 타진했다.

이 책은 의료의 하나인 커먼즈(공동영역)로 본다. 의료란 국가와 시장에만 맡겨둘 수 있는 게 아니며, 시민과 지역이 함께 주체가 되지 않는 한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대담에 나선 백재중은 오늘날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의료와 원격 의료의 의료민영화의 흐름임을 비판하고 있다. 최원영은 좋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해지기 위한 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정원은 소수자와 여성을 위한 현장의 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이지은은 비정상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공포가 결국 노화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키운다고 설렘했다. 김창엽은 현재의 시장형 시스템과 건강보험의 공적 재정이 더이상 지속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며 '사람중심' 시각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창비. 1만6000원. 진선희기자

처참한 재난의 경험 속 보석 같은 순간들

김은지의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처참한 재난의 경험 속에 마주했던 보석 같은 순간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인 김은지 원장의 에세이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다.

김은지 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스콜 닥터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단원고로 가서 아이들을 돌봤다. 정신과 의사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없었고 학교 안에 마땅한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는 것"이라며 학교로 향했다.

상대방에게 말하듯 써 내려간 그의 글은 연대, 돌봄, 치유, 성장으로 나눠 실렸다. 세월호의 상처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함께 견뎌주고, 살아내고, 사랑하고, 꿈을 꾸는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가 말하는 연대는 도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의 뜻에 동의하고, 서로 더불어 행동하는 걸 의미한다. 그는 인간의 회복 탄력성을 분석한 유명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가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믿을 만한 어른이 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복지 시설을 늘리고, 그들을 키우는 지역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울이 찾아왔을 때 극복하는 법도 꺼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얼어붙은 몸을 달래듯, 긴긴 눈물 끝에 드러난 마음의 바닥을 이루 만지며 스스로를 위로해주라는 것이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만났던 단원고 아이들이 졸업할 때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의 시선 때문에 더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김 원장은 진정한 평안과 감사는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아집을 내려놓을 때" 온다고 했다. 마음의숲. 1만45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고된 나날 달래줬던 제주섬의 노래



보유단체인 제주민요보존회가 '제주민요'를 시연하고 있다.

제주도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종목은 '해녀노래'다. 지정일은 1971년 8월 26일인데 당초 1호에 올랐던 제주민요에는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7레 7는 소리'도 있었다. 그 노래들은 1989년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종목에 포함되면서 제주도문화재에서 빠졌다.

제주민요는 일찍이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고유성이 빼어나고 가락과 사설이 독특한 노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시대 변화로 제주민요가 급속하게 사라져가자 그 일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작업이 추진됐다. 그 결과 성읍민요는 농촌에서 불리는 노동요와 더불어 현장 소재 지 특유의 가창유희요가 폭넓게 전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민요 전반을 포괄적으로 조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제주도무형문화재였던 '7레 7는 소리', '산천초목', '봉지가', '오돌또기'가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록도서 제주민요 의미와 전승 활동 '오돌또기' 등 개별 민요 분석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로 묶인 배경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30여년이 흐른 '제주민요'에 담긴 의미와 전승 활동을 살필 수 있는 단행본이 나왔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인 양영자 박사과 황나영 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연구원이 집필한 '제주민요'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국가무형문화재 기록도서로 출간된 '제주민요'는 개관, 발생과 전승, 사설과 연행양상, 음악적 특징, 의미와 가치, 전승현황, 악보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 중심의 노동요인 '7레 7는 소리'와 가장유희요인 '산천초목', '봉지가', '오돌또기' 등 개별 민요에 대한 촘촘한 분석을 통해 가창자, 전승 지역에 따른 차이 등을 비교하며 심층적 이해를 돕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인 가창유희요인 '오돌또기'를 두고는 '김복수전' 발굴 사례 등을 제시하며 "중앙문화 중심의 문화전파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종목이던 '제주민요'는 초대 조율선 보유자 별세 이후 전승시스템 등을 고려해 2017년 단체종목으로 전환됐다. 현재 제주민요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인정받아 성읍민요의 맥을 잇고 있다. 역락. 3만원. 진선희기자

Gallery ED

그리고 Present

2020. 12. 16 WED ~ 1. 29 FRI

관람시간 안내

평일	주말 (±, 日)	· 휴관 : 매주 월요일 · 문의 : 064-750-2543
Open 11:00 Close 18:00	Open 11:00 Close 17:00	

한리일보